

Ocean Jeju

해양 제주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바당'

바람의 길 제주

The Wind's Road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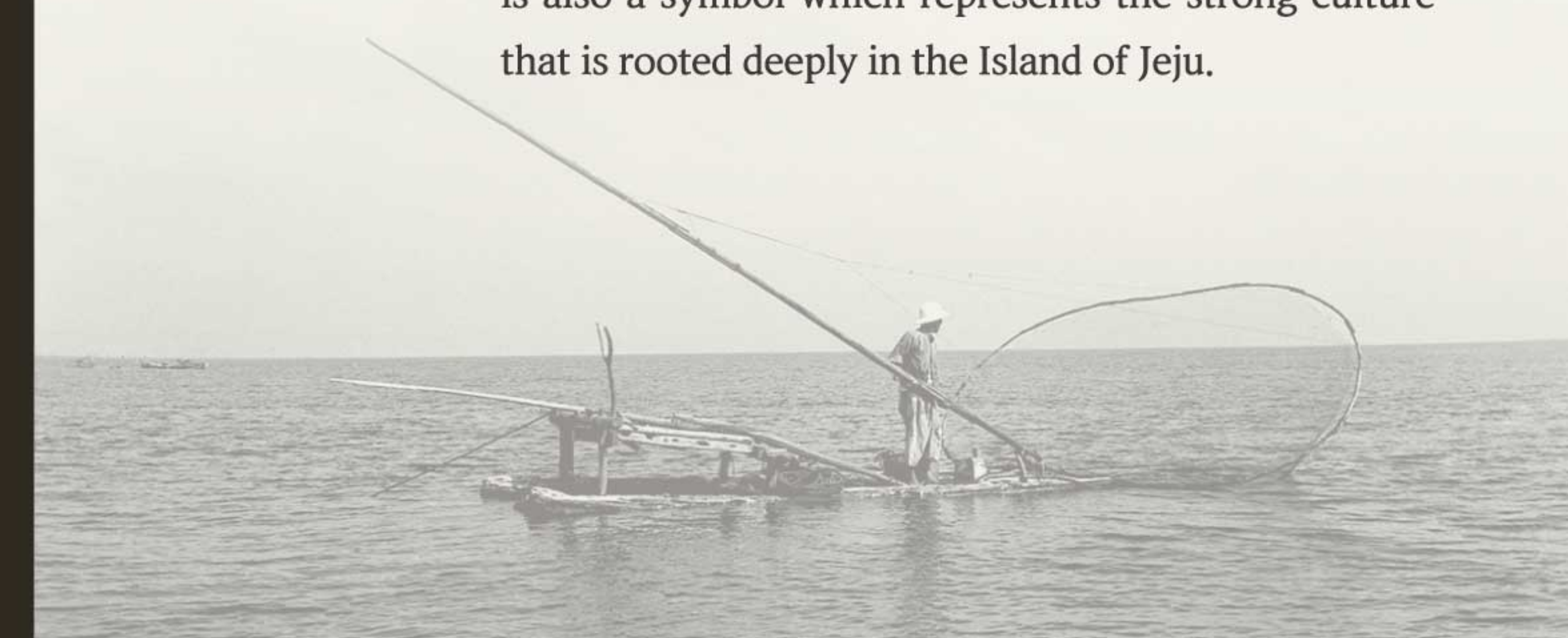
해양 제주의 성립과 변화의 동력은 바람이다. 바람은 제주도에 온갖 문물을 실어왔고, 실어가게 했다.

문주란, 황근, 협죽도, 선인장 등 해안 자생 식물과 황새, 팔색조, 노랑부리저어새 등 조류도 모두 바람을 타고 왔다. 사람들도 바람을 타고 멀리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바람을 잘못 만나 오키나와, 중국, 대만, 필리핀 심지어 베트남 까지 표류하기도 했다.

제주도를 '절해고도絶海孤島'라 부르며 머나먼 고립된 섬으로만 치부해왔지만 바람이 부여하는 역사 동력의 힘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해양적 사고 속 제주의 바람은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옹골찬 뿌리를 깊게 내린 제주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Wind is the motivation of Ocean Jeju's establishment and change. Wind made civilizations come and go. Natural marine plants such as crinum, yellow rosemallow, sweet oleander and cactus, along with birds such as storks, fairy pitts and spoonbills all came with the wind. People also went far out into the ocean with it. But at times, strange winds had drifted the people away to Okinawa, China, Taiwan, and Philippines; even to places as far as Vietnam.

Even though the country's main stream history thought Jeju as a lonely and deserted place, calling it 'The Isolated Island', the power of movement granted by this wind cannot be ignored. Despite the unfortunate image given by harsh marine mentality, the wind is also a symbol which represents the strong culture that is rooted deeply in the Island of Jeju.



용기문 토기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여명이 동트는 바다

The Dawn of the Sea



조개팔찌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선사시대 인간의 해양활동 흔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확인되고 있다. 제주의 신석기인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평탄한 지역의 구릉 등에서 생활 하며 변화하는 기후와 환경 속에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동물 사냥, 낚시, 조개 잡이 등을 하며 살았다.

탐라는 주변지역과의 해상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였다. 대부분의 대외교류는 조공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점차 교류대상과 물품이 늘어났다. 탐라의 주요 수출품은 생선·전복·굴·우황·우피 등이었으며, 주요 수입품은 귀금속·철제 생활용구·쌀·약재 등 탐라에서 생산 되지 않는 생활용품이나 귀중품들이다.

해상왕국 탐라

Tamna :
The Marine Kingdom



제주 광지리 출토 철제품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제주 신창리 해저 출토 금제품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관람시간	무료관람
평일	9:00 - 18:00
토요일	9:00 - 21:00
일요일, 공휴일	9:00 - 19:00
어린이날	9:00 - 21:00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다음 첫번째 평일이 휴관일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051-309-1900 www.knmm.or.kr

2020.
04.28 - 07.05

공동 주최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세계인의 제주인식

The World's View on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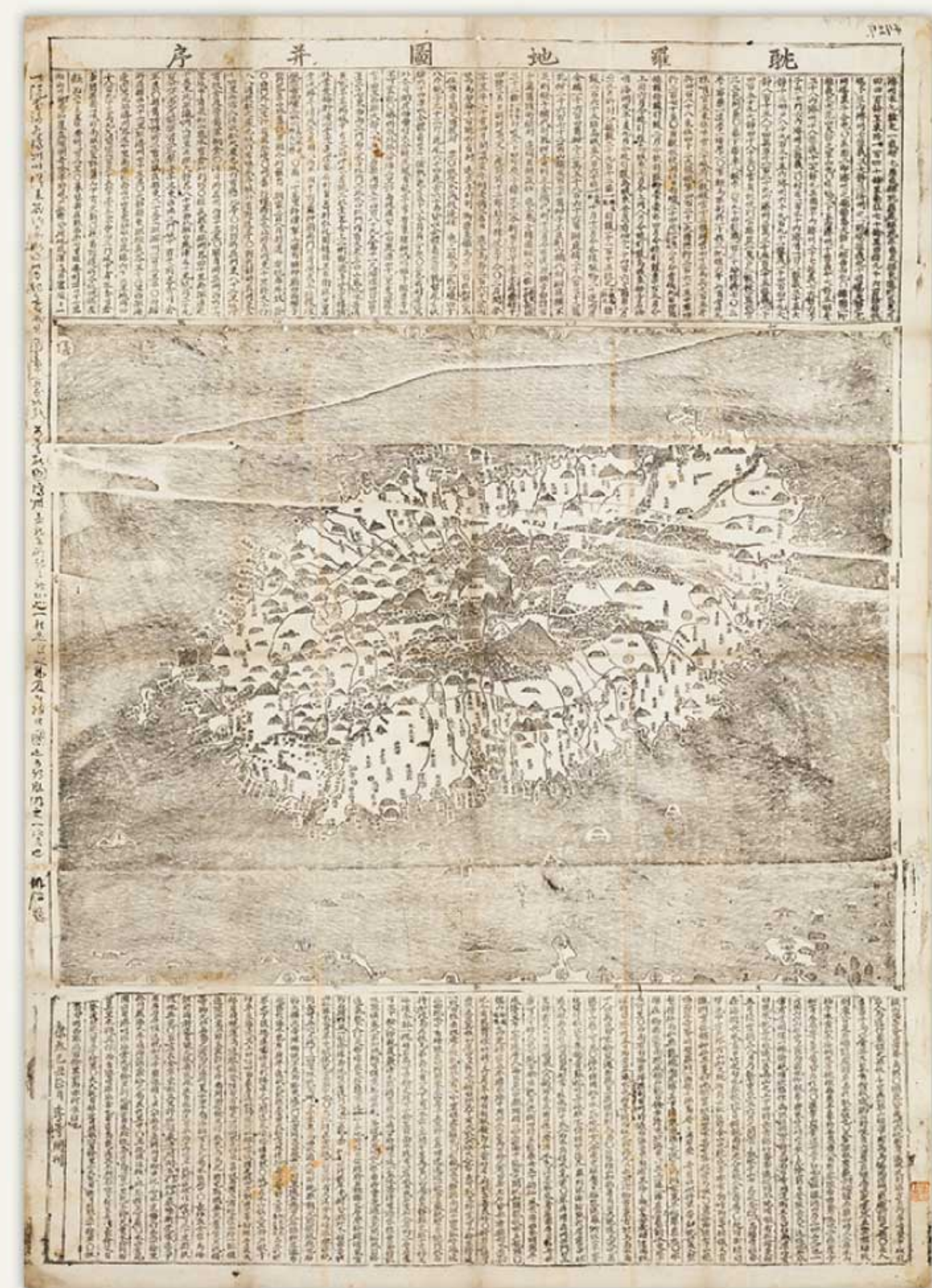


자크 니콜라스 벨링의 중국지도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존 세넥스의 아시아 지도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제주인의 세계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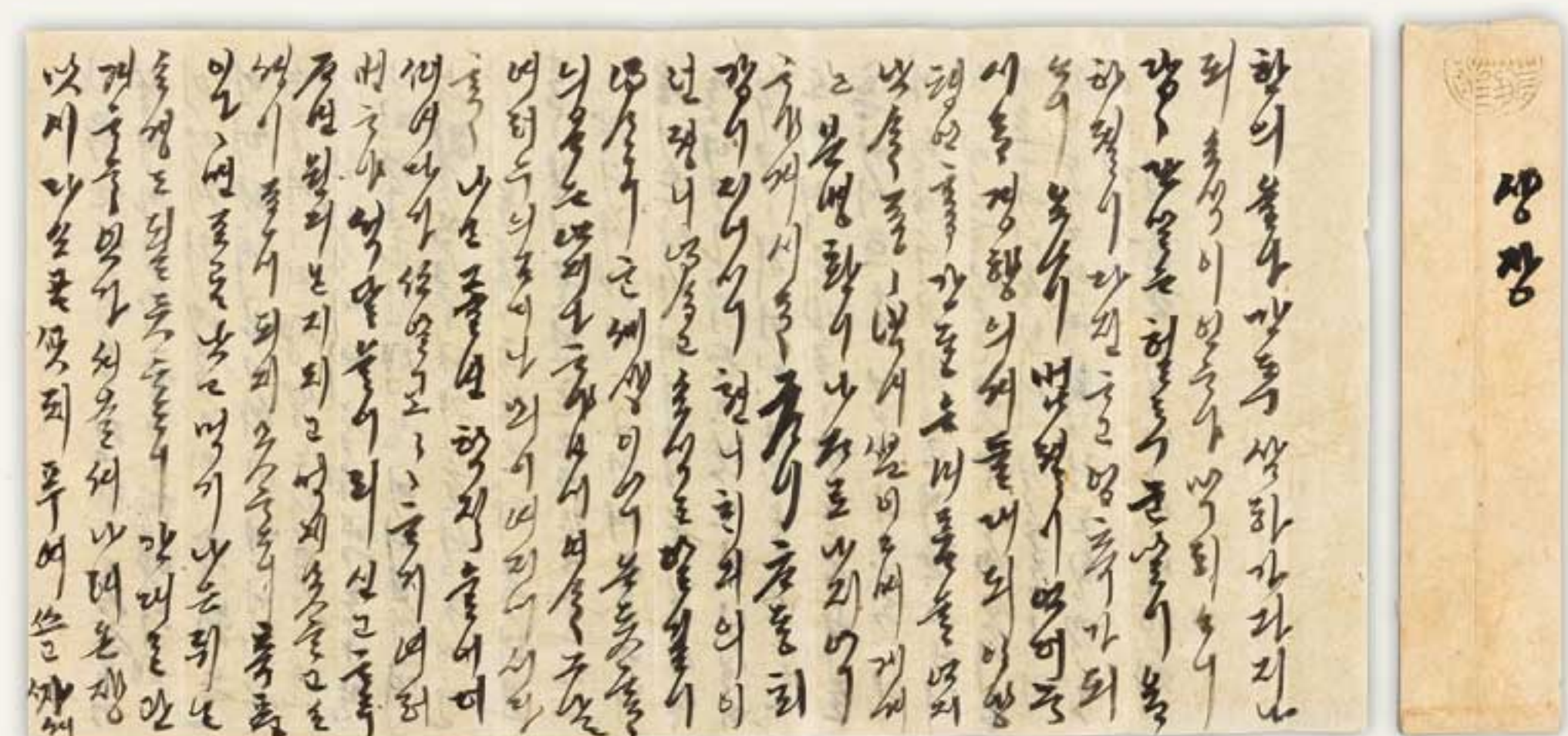
Jeju's View of the World



탐라지도병서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15세기 대항해시대가 펼쳐진 이후 본격화된 식민지 정탈 및 세계적 차원에서 상업적 교류가 본 궤도에 오른 시점 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하멜의 제주도 표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제주는 한반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변방의 섬이 아닌 남방 해역의 나라들과 최선단 접촉점에 있는 지역이다. 쿠로시오 해류를 통한 자연적, 인간적, 물질적 교섭관계를 오랫동안 가져왔다. 고대 탐라의 항해술로 볼 때도 제주 인들은 일정한 항해 교통로를 확보하고, 상호교류 했던 증거들이 고고학적인 증거와 역사적 기록을 통해 확인 되고 있다.



김정희의 한글편지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유배와 감옥의 섬 제주

The Island of Banishment and Prison Jeju

제주도가 유배지로 주목받은 것은 조선시대이다. 출륙금지령은 유배인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했다. 해금海禁과 유배는 다른 상황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작동하였다. 서울에서 가장 먼 제주는 중죄인의 유배지였다. 제주 유배객에게 제주에 이르는 바닷길은 고난 그 자체였다.



전통 해너복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테왁망사리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눈 (물안경)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새로운 세상을 찾아서

Finding a New world

조선 후기에는 지배체제가 제주도까지 미치면서 한양으로 보내는 공물의 진상과 노역 국가의 강제노동이 늘어났다. 이를 견디지 못해 15세기 후반부터 해안가에서 주로 미역을 채취하던 해녀잠녀潛女, 잠수潛嫂들이 그 역할을 담당 하게 되었다. 해녀들은 일제강점기 본격적으로 섬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서게 된다. 부산, 울릉도, 독도, 흑산도 등지로 나가는 이가 많았고, 심지어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나아갔다.



맹두 (요령고·신칼·산판)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철성돌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1만 8천 신들의 고향 제주

Home to 18,000 Gods Jeju

시대는 변화였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제주인은 토착신을 모시고 있다. 육지의 신목神木과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도 신령이 깃든 나무는 금기의 대상이며, 숲은 성역이 되어 마을신이 되었다. 발농사초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섬에서 신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중 바람과 바다가 밀접한 제주도는 생업 수호와 관련하여 뿔 수 없는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

쿠로시오 문화권 인간의 삶

The Human Lives of Kuroshio

쿠로시오 해류는 대서양의 멕시코만류 다음 으로 규모가 큰 해류이다. 북태평양을 휘감고 있는 이 난류성 해류는 남중국, 대만, 일본 오키 나와 등 아열대성 해양문화권을 간직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는 쿠로시오 해류권의 영향으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준 아열대성 해양 기후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제주인의 삶과 문화 속에 스며들어 그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제주 옹기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관광의 섬 제주

A Tourism Island Jeju

1960~90년대까지 다른 나라에 온 듯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그곳은 단연 제주도였다. 당시에는 인기 신혼여행지, 학생들의 수학여행지의 메카 였으며, 지금도 국내 여행지 중에 국민들 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한 곳이다. 이러한 제주도는 한라산을 정점으로한 산악지대와 광활한 중·산간지대, 수려한 해안지대 및 도서 지역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한반도 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한 기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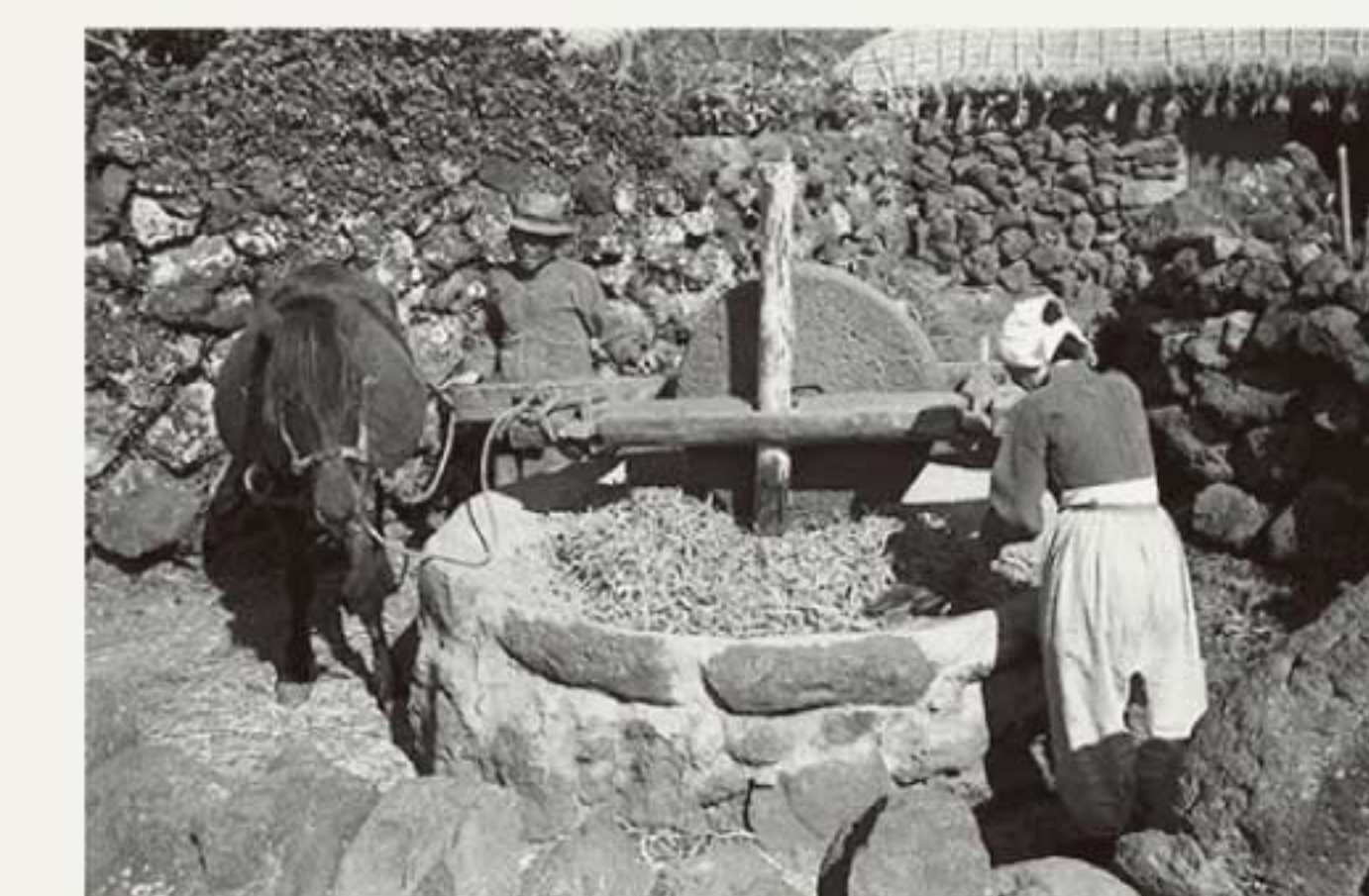
제주도 명승 안내 사진첩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제주 관광 기념 음반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오션 아트 갤러리

Ocean Art Gallery



동자석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